

S-Oil, SD와 Aramco 공동경영!

김선동 회장 유임 ... 알 아르나우트 부회장 등 3인 대표이사 체제

S-Oil이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공동 경영체제로 운영된다.

S-Oil은 3월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김선동 대표이사 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ARAMCO에서 지명한 알 아르나우트 이사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신규 선임했다.

이로써 S-Oil은 김선동 회장과 알 아르나우트 부회장, 유희기 대표이사 사장의 3인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.

S-Oil의 35% 대주주인 ARAMCO가 직접 상근 대표이사를 파견함에 따라 그동안 오너형 전문경영인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김선동 회장의 경영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ARAMCO는 2002년 김선동 회장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주주의 경영감시 및 감독 차원에서 직접 경영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S-Oil은 국내 석유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선동 회장이 여전히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겠지만 대주주 측 파견 경영인인 알 아르나우트 부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경영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S-Oil 관계자에 따르면, 대주주인 ARAMCO의 전문경영인을 경영진에 추가로 영입한 것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회사의 복수 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.

한편, S-Oil은 26일 오전 이사회에 앞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여혁중 수석부사장과 알 아르나우트 부회장, 알 카알 사우디아라비아 ARAMCO 부사장, 스티븐 호스 수석부사장을 신규이사로 선임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3/28>